

HOLY HABIT MOVEMENT PART 2

3. 성령 충만 - 마땅히 구할 한 가지

1. 다니엘은 다른 술객, 점성가들과 비교할 때 어떤 점이 달랐나요? 삶의 여러 측면과 영적인 면에서 다니엘과 그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적어봅시다.

- 느부갓네살은 당대 세계 최고의 제국을 다스리는 최상위 권력자였음에도 꿈 하나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모든 박수와 술객, 점성가들을 불러 꿈의 뜻을 묻지만 해석하지 못했고, 바로 그때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왕은 이제야 안심이 되었는지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라고 부르며 자기 꿈의 해석을 말해 달라고 합니다.
- 이처럼 다니엘은 다른 술객, 점성가들과 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들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단순히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는 달리, 그는 인간적인 점술과 주술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꿈을 해석하고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능력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며 결국 그가 여러 왕들의 통치 아래서도 중요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2.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양한 점에서 다르지만, 특히나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음”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림”입니다.
-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 자기 힘으로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꿈의 뜻을 말했다는 것 또한 드러났습니다(단 2:28-30). 그러니 느부갓네살도 ‘은밀한 것’을 알고자 했을 때 세상에 속한 어떤 권력자나 부자, 지혜자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알고 다니엘이 자신에게 나아왔을 때 그를 환영했으며 꿈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물었던 것입니다.
- 이처럼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사람은 결국 내 주변 사람들이 먼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신다면 내 삶의 열매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다니엘의 삶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3.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벨드사살’로 불리며 새로운 정체성을 강요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강요받고 있는 정체성과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나요?

-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름까지 ‘벨드사살’로 바뀌는 등 새로운 정체성을 강요받았습니다. 바벨론은 그를 자신들의 문화와 가치관에 동화시키려 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 오늘날 우리가 강요받는 정체성과 삶의 목적

① 물질만능주의(성공 중심의 가치관)

우리는 돈, 명예, 직업적 성공을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삼도록 압박받습니다. 어릴 적부터 경험하는 교육 환경과 사회 환경(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그리고 SNS나 매체를 통해 보는 사람들의 모습도 전부 이것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성공하지 못하면 무가치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불안과 극심한 스트레스, 오히려 성공한 후에 큰 허무감을 경험합니다.

② 외모지상주의(과도한 이미지메이킹)

사회는 특정한 외모, 라이프스타일, SNS에서의 보기에 좋은 ‘완벽하고 이상적인 모습’을 요구합니다. 화려한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 나설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로 인해 자존감이 하락하며 외롭고 사회에 대한 불필요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끝없는 노력에도 만족할 수 없는 피로감도 느끼게 합니다.

③ 세속적 기준에 따른 삶의 방향

신앙을 마치 나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기게 하여 현실적인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이러한 세속적 기준에 따른 방향성은, 적당한 신앙생활이 현실에서 손해 보지 않게 한다는 인식도 들게 하며, 안락과 편안을 최고의 행복의 가치로 여기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신앙을 마치 삶의 전 영역이 아닌 하나의 영역으로 치부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제자의 삶을 무가치하고 비상식적인 일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 이러한 강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 다니엘과 같이 ‘진정한 정체성’을 붙잡아야 한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이 주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붙잡아야 합니다.

- 1)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요 1:12)
- 2)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전권대사입니다(창 1:27)
- 3)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신 33:29)

❷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

세상은 돈, 명예, 성공을 삶의 목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결단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온전히 만족하게 하거나 채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 1)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고전 10:31)
- 2)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시 65:4)
- 3)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마 25:40)

4. 아래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롬 8:5-7)

- 요즘 내가 자주 하는 생각들을 분류해 봅시다. 무엇이 육신의 생각이고 무엇이 영의 생각일까요?
- **육신의 생각:**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보다 내 만족과 욕구를 우선하는 생각
- **영의 생각:** 하나님 중심적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생각
- 육신의 생각은 세상의 관점으로 하기에 쉽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5.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내 생각과 의지, 주관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 자리까지 모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의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고 인생길을 가는 운전대를 내가 아닌 성령께서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 성품과 삶의 태도를 통해 가장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점점 더 사랑, 기쁨, 양선, 인내, 온유, 충성 등 성령의 열매들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죄를 지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회개하라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죄에서 무감각했던 과거와 달리 작은 죄도 기피하고 멀리하려는 정결을 추구하게 됩니다.
-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며, 깨닫게 하신 대로 순종하고자 결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정예배 가이드

1. 느부갓네살왕이 다니엘을 가리켜 ‘거룩한 신들의 영이 가득한 자’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다니엘은 일전에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도 알아내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한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미 간접적으로 다니엘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 또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그가 꿈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보았기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신적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2.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다음과 같은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❶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치심으로 되어집니다(로 8:9).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이것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❷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은 내 삶과 주님의 말씀이 일치하고 있는지(요 14:26), 기도할 때 평안을 누리는지(빌 4:6-7), 나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고전 10:31)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❸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납니다(갈 5:16).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체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삶과 성품에서 나타납니다(갈 5:22-23).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내 안에 이전에 있던 성향(미움, 불안, 짜증, 조급함, 자기중심적 태도 등)이 다시 나타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로 8:26).

❹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복음을 전함으로, 삶의 모습으로)이 불붙는 듯하여 견딜 수 없어 하는 전도자가 됩니다(행 1:8, 롬 20:9).

3. 성령으로 충만한 삶에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❶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립니다(요 14:26).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깊이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수용하게 하십니다.

❷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삶이 변화됩니다(갈 5:22-23).

성령님은 우리가 이전에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특히 파괴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성품에서 벗어나 다른 이를 위로하는 선하고 인격적인 성품을 소유하게 하심으로 관계 또한 회복되게 하십니다.

❸ 기쁨과 평안으로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롬 15:13).

세상의 걱정과 염려, 상황과 환경으로 좌절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 평안과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스스로도 만족해합니다.